

보도자료 2013. 7. 5.	 <div>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div>	
	담당부서	국제심의관실
	담당자	국제심의관 진상훈 (☎3480-1969)
	공보관실 ☎ 3480-1451	

폴란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 한·폴란드 사법협력 양해각서 체결

- 스타니스와프 돔브로프스키 폴란드 대법원장은 2013. 7. 9.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고, 양국 사법교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음
- 양국 대법원장은 회담 직후 양국 사법부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한민국 대법원과 폴란드 대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이번 방문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2012년 8월 폴란드 대법원 공식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에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1. 방문 개요

- 스타니스와프 돔브로프스키(Stanisław Dąbrowski) 폴란드 대법원장이 7. 8. (월)부터 7. 12.(금)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한국 대법원을 방문함
- 돔브로프스키 대법원장은 테레사 플레밍-쿨레샤(Teresa Flemming-Kulesza) 대법관, 프셰미스와프 칼리노프스키(Przemysław Kalinowski) 대법관 등 4명의 대표단과 함께 방한하였음
- 이번 방문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2년 8월 폴란드 대법원을 공식 방문한 뒤 답방 차원에서 돔브로프스키 대법원장을 초청한 데 따른 것이고, 폴란드 대법원장으로서 첫 번째 한국 방문임

2. 양해각서 개요

- 양국 대법원장은 7. 9.(화)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양국 사법부 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한민국 대법원과 폴란드 대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양승태 대법원장의 2012년 폴란드 대법원 방문 등으로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던 차에, 폴란드 사법부가 한국의 발전된 사법체계와 앞선 사법정보화의 경험을 나누고자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희망하였고, 우리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임
- 이번 양해각서는 판례·법령·사법통계 등 사법정보의 교환 및 상호 방문단 파견시 업무 협조 등 향후 양국 사법부 간 교류·협력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음
- 한국 사법부가 외국 사법부와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2004년 일본, 2005년 러시아, 2006년 중국, 2012년 페루 및 베트남에 이어 여섯 번째임

3. 방문 세부 내용

- 돔브로프스키 대법원장은 7. 9.(화) 10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하였고, 이어서 11시경 양국 대법원장은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공식 접견과 이어진 환영 오찬에서는 양국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한국의 사법정보화 현황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이 교환되었음
- 한편 폴란드 방문단은 7. 8.(월)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방문하여 세계적 수준인 한국의 사법정보화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을 살펴보았음

4. 향후 일정 등

- 폴란드 방문단은 7. 12.(금)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사법연수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법관연수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국회부의장 및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할 예정임
- 돔브로프스키 대법원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사법부 간에 사법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이 한 차원 높게 격상되고,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